

2025 년 9 월 16 일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
조선업 및 선박해체업종 액션그룹 회의 채택 결의안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투쟁에 대한 연대

국제제조산별 조선및선박해체분과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백호선지부장이 60 미터에 달하는 턴오버 크레인 고공농성 및 전면파업 상황에 대하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며, 한국의 현대중공업 사측에서 자행한 노조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한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사측 경비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20 여명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국제적 지탄에 대상이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또다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측 경비대가 여성조합원의 안면을 가격하여 여성조합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노조원에 대한 폭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되며 있을수도 없는 만행이다.

국제제조산별 조선및선박해체분과는 이러한 현대중공업 폭력에 대하여 긴급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정부는 현대중공업내 노조원 폭행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노조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를 하여야 한다.

국제제조산별 조선및선박해체분과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이 고공에서 땅에 내려올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현대중공업 사측의 비상식적인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